

협회소식지 발행에 즈음하여

(한국오리협회장 안 희 복)

친애하는 협회원 그리고 오리업계 종사자 여러분?

우리는 과거 고속성장에 치중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 급기야 IMF에 우리경제를 맡기는 역사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정상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차제에 국내 오리업계는 96년과 97년의 장기불황에 의한 사육량 감소 및 지난 12월 말 홍콩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금지가 겹치면서 장기간 계속되던 오리업계의 불황이 호황으로 변화하는 예상이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업계 현재의 호황은 정상적인 구조하에서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언제라도 국내 오리업계는 또다시 불황의 늪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재 국내 오리업계는 타 축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불리한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는 장점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업계종사자들의 힘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이 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오리업계의 상황은 단결과 화합보다는 경쟁의식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서로가 분열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이를 이용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팽배해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리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협회차원에서 해야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런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계종사자들의 협회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협회는 여러분들이 주인이며 협회가 많은 일을 하고 못하는 것 역시 여러 회원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협회는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매월 회보지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 회보지가 회원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협회는 회원여러분의 권익보호에 더욱 정진할 계획임을 천명하며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 많은 성원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